김윤서의
당신이 잠든 사이

연준의 금리인상에 너무 겁먹진 말자

주식시황 김윤서
2184-2285 / yskim113@ktb.co.kr

18 Jun. 2015

1. 6월 FOMC 성명서 문구변화, "1분기 경기부진은 일시적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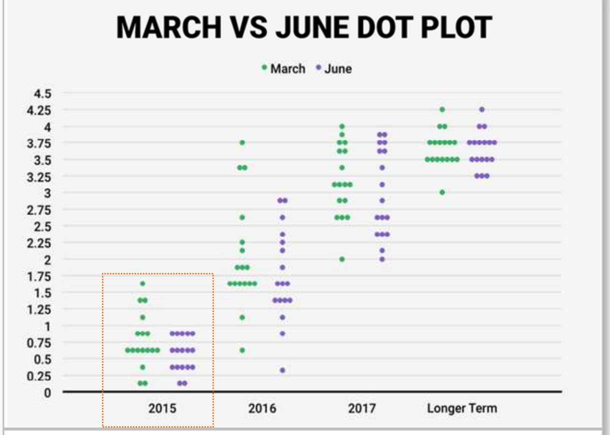
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~~March~~**April** suggests that economic ~~growth slowed during the winter months, in part reflecting transitory factors~~**activity has been expanding moderately after having changed little during the first quarter**. The pace of job gains ~~moderated, and~~**picked up while** the unemployment rate remained steady. ~~A~~**On balance, a** range of labor market indicators suggests that underutilization of labor resources ~~was little changed~~**diminished somewhat**. Growth in household spending ~~declined; households' real incomes rose strongly, partly reflecting earlier declines in energy prices, and consumer sentiment remains high. Business fixed investment softened, the recovery in~~**has been moderate and** the housing sector ~~remained slow,~~**has shown some improvement; however, business fixed investment** and **net** exports ~~declined.~~ **stayed soft.** Inflation continued to run below the Committee's longer-run objective, partly reflecting earlier declines in energy prices and decreasing prices of non-energy imports; **energy prices appear to have stabilized**. Market-based measures of inflation compensation remain low; survey-based measures of longer-term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emained stable.

- ■ 고용시장 회복, 가계 소비, 주택경기 등 전반적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 4월 대비 상향. 반면, 고정투자와 수출부문은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
- ■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 외에는 이전 성명서와 전 문구 동일
- ■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월 전망대비 하향 조정
- ■ 2015년도 성장전망 밴드를 1.8~2.0%로 하향 (3월: 2.3~2.7%)

→ 1분기 역성장(-0.7%)분 반영. 하반기 미국 경기회복 속도 가속 기대 반영

→ 하반기 미국 성장회복 지연 시, 연내 금리인상 불가 RISK도 잠재

2. 올해 말 예상되는 정책금리 수준도 3월 대비 하향



- ■ 연내 한 차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 무게. 연준위원들이 전망한 연말 정책금리 평균값은 0.57%로 전월 0.77%에서 하향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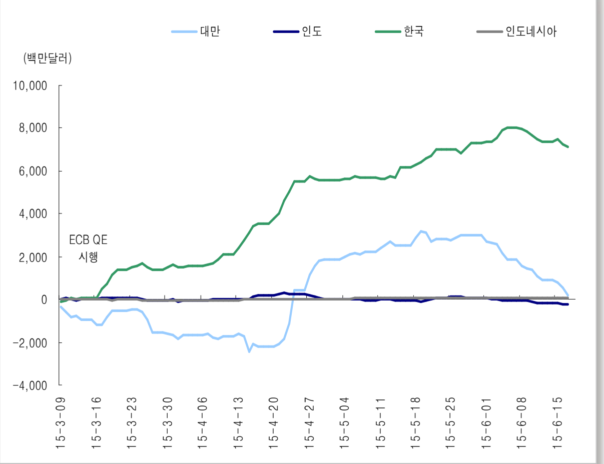
→ 지난 3월, 과반수 이상이 연내 두 차례 인상을 주장했던 것 보다 완화적

→ 강달러와 1분기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성장전망 하향조정 영향에 기인

- ■ 옐런의장, " 첫 금리인상 시점 보다는 그 이후 여전히 점진적이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에 주목해야 함"을 재차 강조
- ■ "경제전망을 예측함에 있어서 달러화 강세를 고려하게 될 것"

→ 단기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듯. 한국증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

3. 한국증시 외국인 수급, 여전히 신흥아시아 중 가장 견고



- ■ 6월 FOMC회의, 연내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,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재차 확인
- ■ 단기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국내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
- ■ 한국증시, 단기조정 불구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여타 신흥국 대비 견고한 흐름 지속 중. 상대적으로 견고한 펀더멘털과 기업실적 회복 기대감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 자금유입 지속될 전망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- ■ 6월 FOMC회의, 연내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 부재
- ■ 경제성장률 전망 및 연말 예상 기준금리 하향 조정 등은 여전히 완화적인 연준의 정책 기조를 반증

→ 아직까지 연준의 "긴축"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

- ■ 정책 불확실성 해소관점, 국내증시 포함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기대
- ■ 여타 신흥아시아 대비 가장 견고한 한국의 외국인 수급 감안 시, 이머징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재개된다면 한국증시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
- ■ 5~6월 낙폭과대로 가격매력이 높은 대형 시클리컬 중심 반등 기대
- ■ 증권, 정유, 화학, 전력가스 선호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

Source: Business Insider, Bloomberg, KTB투자증권